

롤 프로게이머 재능기부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LOL

‘막눈’ 윤하운 선수… 전국 최초 내년까지 ‘광주 북구’ 답례품 활용 3만포인트 이상 e스포츠 강의 진행 “고향서 e스포츠 인재 발굴 노력”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출전에 빛나는 ‘막눈’ 윤하운 선수의 재능이 광주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선수 본인의 ‘지역 봉사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윤 선수의 재능기부는 내년까지 e스포츠 강의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롤 프로게이머 윤하운 선수가 지난달 ‘광주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상세 항목은 문화·관광·레포츠 분야 e스포츠 교육(막눈에듀)다. 윤하운 선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서 △게임관련 온라인 강의 △프로선수와 함께하는 게임체험 △게임 리플레이 온라인 강의·상담 등을 진행한다.

답례품 포인트는 10만원 이상 기부시 받는 최저치인 3만 포인트다. 이는 젠지·T1 아카데미 등 e스포츠 교육기관의 프로젝트이며 1:1교육비 대비 약 1/4 수치다. 통상 유수의 아카데미 가격은 한달 8



‘막눈’ 윤하운 선수의 재능 기부가 광주 북구의 ‘전국 최초 e스포츠 답례품’에 선정됐다. 게임 방송 중인 윤하운 선수. 나건호 기자

회 기준 25만~6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최소 100원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막눈에듀의 경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으로 ‘사실상 무료’로 e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출신인 윤 선수는 지난 2012년 1세대 리그오브레전드 프로팀 나진 엠파이 어에서 데뷔했다. 이후 KT롤스터와 CJ 엔투스·BBQ울리버스를 거쳐 현재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선수 시절 수준급 플레이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선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현역 당시 트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코리아 우승 △롤드컵 8강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MVP 등을 수상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에는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후 코치직을 이어 오던 윤 선수는 ‘고향에서 e스포츠 인재를 발굴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지난해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곧장 광주로 내려왔다. 이후 호남대·광주시e스포츠교육원 등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 최근에는 광주 장애인 e스포츠단 ‘무등’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강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구 e스포츠 지원조례’를 발의한 정재성 북구 의원이 선수와 지자체 측에 북구 이색 고향사랑기부제로 추천했고, 수개월 간 이어진 심의 끝에 ‘전국 최초 e스포츠 답례품’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재성 의원은 “광주 곳곳에 e스포츠 인프라가 많지만 e스포츠 아카데미나 전문학교 등 교육을 위한 장소가 마땅히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재능기부에 나서준 윤하운 선수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광주가 e스포츠 중심지이자 꿈쟁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하운 선수는 “선수·코치 생활 대부분 서울과 해외에서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다. 말미에는 이곳에서 꼭 재능기부를 하고 싶었다. 광주는 이미 2018년 롤드컵 개최 이후 ‘e스포츠 도시’로서 큰 이미지가 구축되기도 했다”며 “좋은 기회로 봉사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많은 팬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한국시리즈 담금질’ KIA, 연습경기 무료 개방



2024년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 짓고 담금질에 돌입한 KIA타이거즈가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한 연습경기를 팬들과 함께 한다. 상무 피닉스와 롯데디자인즈에 이어 자체 연습경기까지, 세 경기

를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KIA는 오는 9일 오후 2시 상무전과 14일 오후 6시 롯데전, 18일 오후 6시 자체 연습경기(흑백전)를 모두 무료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세 차례 연습경기는 모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

KIA는 정규시즌 우승을 기념하고 팬들

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연습경기 무료 개방을 진행한다. 특히 선수단은 팬들의 응원과 함성으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습경기 예매는 경기 개시 전날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매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며 무인 발권기를 이용해야 하고, 현장 판매와 스마트 티켓은 운영되지 않는다.

내일 상무·14일 롯데·18일 흑백전 경기 전날 오전11시부터 예매 시작

개방 대상 좌석은 챔피언석과 중앙테이블석, 타이거즈 가족석, 서프라이즈석, K9석, K8석, K5석이다. 전석 매진될 경우

K3석을 추가로 개방하며 외야석과 에코 다이내믹스 가족석, 스카이 피크닉석, 파티석, 스카이라이프는 개방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 참가 선수단을 블랙 팀과 화이트 팀으로 나눠 진행하는 자체 연습경기는 당초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밀려 18일 오후 6시 개시한다.

한규민 기자

9일 한글날… 내일자 신문 쉽니다

제30회 녹색환경대상 공모

환경지킴이를 찾습니다

공모부문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자연 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서한태환경상 지역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시 상 종합대상 (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부문별 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서한태환경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공모대상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도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공직자, 학교, 기업체 등 자격제한 없음

제출서류 개인 인적사항 (법인은 연혁·등기부등본) 1부
공적조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www.jnilbo.com) 1부
공적 증빙 자료·사진 각 5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적조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접수기간 10월 7일 (월) ~ 11월 15일 (금)

수상자발표 12월 2일 (월) 전남일보 게재

시 상 식 12월 11일 (수) 예정

접수·문의 우편접수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6층 사업본부
전화 (062) 519-0730
팩스 (062) 510-0436

■주최: 광주은행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엑스

■후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